

YTN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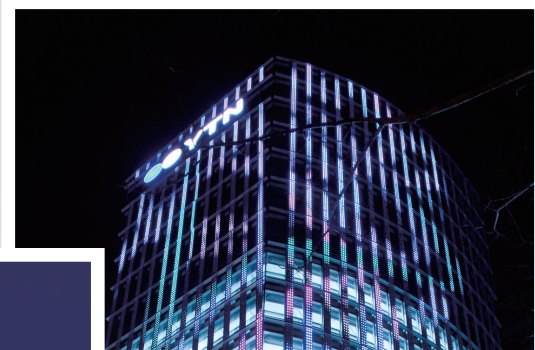
뉴스
2014
March
Vol 109
동서
남북

상암동
시대
막을 열다

YTN

상암동 시대가 막을 엽니다

창사 20주년을 맞은 '청년 YTN'에게
상암동은 제2의 창사,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YTN은 시청자가 중심이 되는 변화와 혁신을 펼치고, 시청자와
더 가깝게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청자와 함께 써 나갑니다.



미디어 파사드 (Media Facade)

건물의 외부 면(지상2층부터 18층까지)에 다양한 예술적 영상 작품과 시사성 있는
영상 표현물들을 재생·표출하는 최신 미디어 장치로 세로 77m, 폭 40m 규모로, 건물 외부의 유리면에
전동 루버를 세로 방향으로 매달고 각각의 루버 표면에 LED 조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연출한다.

최근 들어, 미디어 파사드를 통한 영상물의 표출은 도시의 대형 건물에 적용되는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경향으로 각광받고 있다.

커버스토리	상암동 시대 막을 엽니다 YTN 뉴스퀘어 준공식 이병균 뉴스퀘어 건립공사 경과보고 이한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장소원 제2 창사 상암 시대에 거는 기대 윤원식 부활한 추억의'달팽이 계단'	004 006 008 010 012
ZOOM IN	출발! 2014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라 이진주 대한민국의 하루를 연다 <뉴스출발> 정혜윤 더 실감나고 피부에 와 닿는 날씨를 ... 안흥수 감이 떨어질 때 만 기다릴 수 없다	014 016 018
제280회 이달의 기자상	<우리 동네 유독물 공장 지도 공개> 함형건 "왜 20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만 취재할까?"	020
20세기 황금 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명화전 변주영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전시회	022
YTN 웨더	불청객 '미세 먼지' 웨더가 해결한다 오경주 미세 먼지와와 본격 맞짱	024
YTN 라디오 1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026
YTN 라디오 2	진미선의 아침풍경 진미선 "여러분, 주말이에요~"	028
YTN 월드	일본인들의 소소하고 생생한 일상의 모습을 전하다 박진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030
YTN 사이언스 1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이은구 대한민국 창의 인재를 세계무대로~	032
YTN 사이언스 2	최종우돌 SCIENCE 인턴을 마치며 차수빈 방송인의 꿈을 키운 소중한 경험	034
게시판	게시판	035

상암동 시대를 제2의 창사,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렇게 YTN 뉴스퀘어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처럼 훌륭한 건물을 세우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회건설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자원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여러분들과 여러 협력업체 등 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YTN의 상암동 사옥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4월 25일 기공식을 하고 첫 삽을 뜬 후 2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고생하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는 YTN이 창사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여기에 맞춰 YTN이 비로소 방송전용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사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사옥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YTN 뉴스퀘어의 외관은 YTN의 Y자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난공사였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주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옥 앞에 있는 조형물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YTN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동 루버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는 준공식 후에 시연이 있겠지만 YTN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식을 하는 이곳 미디어 홀은 150평 규모로 첨단 음향과 조명시설이 갖춰진 다목적 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하지 못하던 토론회 방송은 물론 각종 전시회와 콘서트, 나아가서 사원들의 결혼식 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의 스튜디오를 비롯한 첨단 방송시설은 시청자가 원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기틀이 될 것입니다. 또 1층 체험 스튜디오와 5층 시청자 투어코스는 시청자와 더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옥을 갖게 된 YTN의 과제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상암동 시대를 제2의 창사,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기획, 그리고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YTN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데 YTN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봄 새롭게 출발할 상암동 시대를 기다리며 올해도 사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동 시대가 1월 23일 ‘YTN 뉴스퀘어’ 준공식과 함께 막을 열었다

배석규 사장은 YTN 뉴스퀘어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쏟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YTN 구성원들에게는 상암동 시대를 제2의 창사,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배석규 사장은 서회건설 이봉관 회장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대표, 자원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박상녕 대표에게 감사패를, 서회건설 공영춘 현장 소장 등 23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준공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뉴스퀘어 앞 광장에서 미디어 파사드 시연을 감상했다.

YTN 뉴스퀘어 건립공사 경과보고



이병균 | 자산운영팀

2007년 10월 YTN은 신사옥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12월 우선 협상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08년 3월 서울시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고, 4월에 신사옥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2009년 7월 설계계획안과 설계업체를 선정했고, 10월에 희림건축과 지원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가 추진됐습니다. 2010년 5월 신사옥설계안이 확정됐고 11월에 마포구청에 건축심의를 의뢰했습니다.

2011년 3월, 서희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4월 25일 현장에서 기공식과 안전가원제를 봉행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3년 3월엔 전 층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상량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24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됐고 연인원 12만 6천 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됐고 이혼 종류의 중장비 2,800대가 지원됐습니다.

대지면적 1,500평, 연면적 1만 8,400평인 YTN 뉴스퀘어는 고도가 제한된 불리한 여건임에도 최대한의 사무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했고, 또 그렇게 시공됐습니다. 더불어 신사옥 외벽에 시공된 전동루버는 국내 최초이며 LED 영상까지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신사옥의 자랑거리입니다. 신사옥추진단은 준공식 이후에도 YTN이 일등방송, 최고방송을 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불편한 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서 쾌적한 방송공간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방송사’의 큰 꿈을 펼치길...

이봉관 | 서희 건설 회장

YTN 뉴스퀘어는 2011년 3월 착공되어 토목, 철근,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마지막 전동 루버 작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정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으로 2013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 상암동 DMC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정성과 감리단의 지도, YTN 추진단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토, 일요일도 없이 현장 공기 준수와 우수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땀 흘리고 정열을 쏟아 부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희 건설은 YTN 뉴스퀘어 건설 효과에 따른 홍보와 광고 덕분에 당사의 기업 가치는 물론 기업인지도 또한 전국적으로 크게 오르게 되어 수주 활동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YTN과 서희 건설이 함께하게 됨을 저를 포함한 서희 임직원 모두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암동 DMC에는 이제 YTN을 포함한 20여 개의 언론사와 300여 개의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 입주해 2만여 명의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게 되는 미디어 성지로 육성, 발전되리라 봅니다. 여기에서 YTN 뉴스퀘어는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랜드마크 건물로 명소가 되고, YTN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기상을 펼쳐 창의적 발전과 미래를 리드하는 세계 최고 방송사로 큰 꿈을 펼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창’ ... YTN

정영균 | 희림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YTN 뉴스퀘어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희림은 ‘하늘로 쏘아 올라가는 빛’과 ‘어둠 속 등대’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세상과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창’이라는 YTN의 이념을 강조했고 건물 측면 벽에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24시간 깨어있는 뉴스 YTN’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HD 방송에 적합한 최적의 방송제작 환경을 구현하고자 최첨단 특수설계 및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준공된 YTN 뉴스퀘어는 앞으로 상암동 DMC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YTN 뉴스퀘어 건립을 계기로 YTN이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이자 글로벌 TOP 뉴스채널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년 연속 ‘가장 공정한 언론사’로 선정된 바 있는 YTN이 앞으로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공정하고 유익한 뉴스를 전달하는 등대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동 첫 방송!’ 차질 없이 준비한다

이한배 | 방송인프라팀

상암동 방송 준비팀 구성은

기술위원 이계성 국장을 필두로 김동후 부장, 조상현 차장, 권혁근 차장, 이한배 사원이 현재 **NEWSQUARE**에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고 휴일근무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우리 YTN의 모든 구성원이 근무해야 하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곳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

지난해 10월부터 상암동 **NEWSQUARE**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되짚어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NEWSQUARE**의 모습도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고,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방송 관련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 구축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YTN을 비롯하여 DMB, FM 등 사회사와 모든 매체의 주조정실, NCC(신호분배실), 부조정실, 위성/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설비, 편집실, 음악실, 그래픽실, 아카이브실 등의 방송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계부터 신설 및 이설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조명 시스템 부분은 조명기구를 달기 위한 배튼, 배튼을 올리고 내릴 전동부, 전원 및 제어 케이블 결선, 조명 장비들이 위치할 덤머실 구축 등의 상황이 진행 중이고, 조명 등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스튜디오로써의 위용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은 신사옥으로의 이동에 따른 매체별 이설 계획 수립, 방송시스템 설계 및 도면 제작, 기계실 랙 설치, 조정실 콘트를 데

스크 설치, 각 실간 케이블 포설, 신규 장비 입고 등의 업무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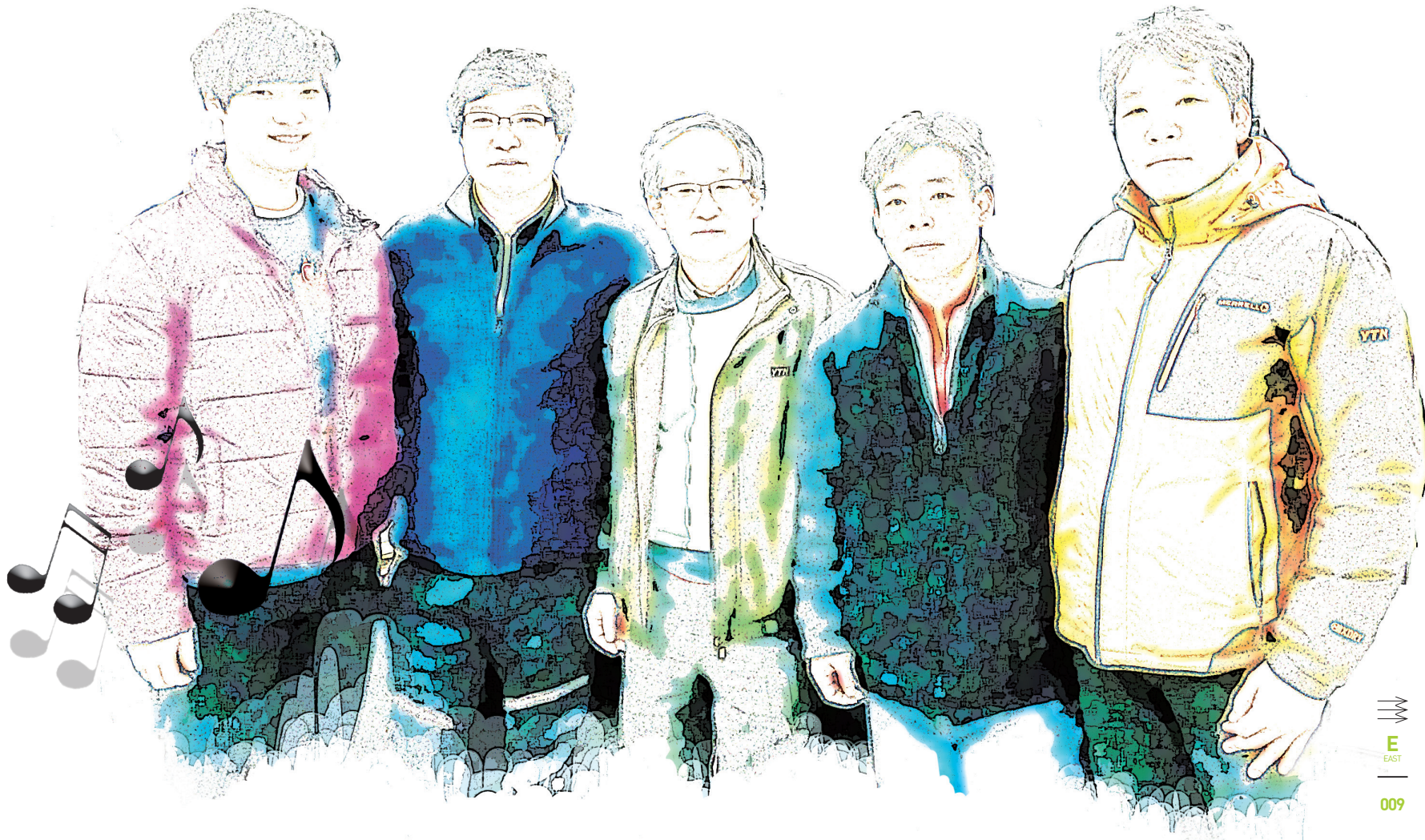
어려웠던 점은

공사현장이다 보니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닦아 낸 지 얼마 안 된 책상 위로 뽕얇게 내려앉은 먼지를 모두 마시고, 난방 안 되는 건물 내에서 추위로 인해 고생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건축 초기부터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람은

현재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보람입니다.



왼쪽부터 이한배, 김동후, 이계성 국장, 권혁근, 조상현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 시청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람된다고 느끼기보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NEWSQUARE에 입주할 직원에게

NEWSQUARE가 완성되어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을 때 신사옥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YTN의 **NEWSQUARE**를 만나게 될 때까지 3년여 간 사내 외의 많은 분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모습의 **NEWSQUARE**를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창사를 이룬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더욱 유익한 뉴스채널, 더욱 알찬 방송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YTN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많은 응원과 칭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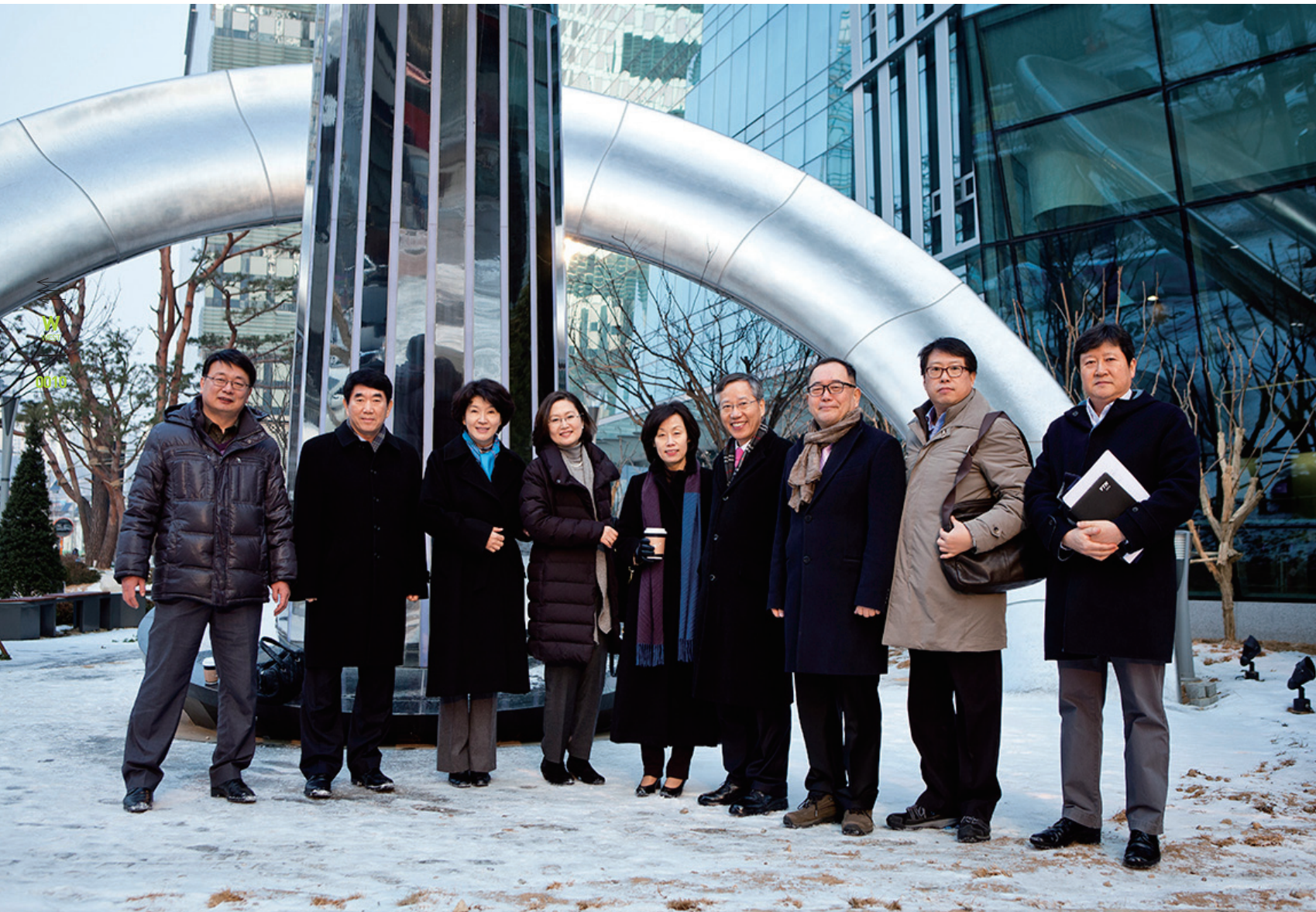
방송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진행사항은 어떤지요

조명 시스템 부분은 조명기구를 달기 위한 배튼, 배튼을 올리고 내릴 전동부, 전원 및 제어 케이블 결선, 조명 장비들이 위치할 덤머실 구축 등의 상황이 진행 중이고, 조명 등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스튜디오로써의 위용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은 신사옥으로의 이동에 따른 매체별 이설 계획 수립, 방송시스템 설계 및 도면 제작, 기계실 랙 설치, 조정실 콘트를 데스크 설치, 각 실간 케이블 포설, 신규 장비 입고 등의 업무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 창사 상암 시대에 거는 기대

장소원 | YTN 시청자위원장(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청자위원 뉴스퀘어 건학 (왼쪽부터 이태영 위원, 임호균 위원, 장소원 위원장, 이귀영 부국장, 김양희 위원, 반장식 부위원장, 김용관 위원, 윤석년 위원, 조항윤 심의팀장)

모바일과 위성 서비스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실시간으로 YTN을 볼 수 있어서
“글로벌 뉴스 채널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1995년 케이블방송의 시작과 더불어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뉴스 전문 TV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개국했다. 바로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YTN이다. 그 후 19년째 YTN이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어느 방송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전달해 오고 있음은 굳이 권위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는 케이블을 통해서만 YTN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는 YTN DMB와 YTN FM(94.5MHz)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모바일과 위성 서비스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실시간으로 YTN을 볼 수 있어서 “글로벌 뉴스 채널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제 올해 4월 7일부터는 만 10년의 승례문 YTN 타워 시대를 마감하고 ‘제2 창사 상암 시대’가 열린다. 상암동 하늘을 뚫고 우뚝 솟은 YTN 신사옥을 보면 외관에서부터 압도당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남대문 사옥과는 사뭇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해서 각종 첨단 설비를 갖춘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사무실 등을 접하고는 “뉴스 전문 방송국도 이렇게 멋진 시설을 갖출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와 과연 ‘제2 창사’로 불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옛날에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새 술을 이미 많이 발효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다시 새롭게 발효가 되어 부대가 터져버리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제 YTN은 상암동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새 부대’를 먼저 마련하였다. YTN TV와 라디오, YTN 웨더와 YTN 사이언스 그리고 YTN 월드까지, YTN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 이 새 부대에 어울리는 맛깔스러운 새 술을 빚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그렇게 담근 술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역시 YTN에서 담근 술은 명주”라고 평가받게 되길 기원한다.



부활한 추억의 ‘달팽이 계단’

윤원식 | 영상아카이브팀



YTN이 창사 20년 만에 드디어 ‘상암동 시대’를 연다. 종로구 수송동의 연합뉴스 건물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95년 이후 10년, 송레문 사옥을 매입하면서 힘차게 도약한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상암동 DMC 부지에 어엿한 건물을 지어 새 주인으로 입주하게 된 것이다.

신사옥의 이름은 ‘YTN NEWS SQUARE’로 ‘NEWS’(뉴스)와 ‘SQUARE’(광장)가 합성된 신조어이다. 중의적으로 ‘새로운(NEW) 광장(SQUARE)’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YTN이 최초로 지은 방송+오피스텔 건물인 뉴스퀘어는, 전체 18층, 지하 6층이며 1층부터 9층까지 YTN을 비롯한 웨더, 사이언스, 라디오, 월드, DMB, 디지털 YTN 등의 그룹이 사용하게 된다. 영상취재부, 영상편집부, 영상아카이브팀 등 영상 관련 부서와 사회부 등 보도국은 3층에 위치하게 되며, YTN 그룹이 사용하는 층 외에는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 뉴스퀘어 사옥 앞에는 YTN의 미래를 상징하는 미술작품이 설치됐는데, 사원들의 투표를 거쳐 <홍익대 미대 이수홍 교수의 ‘세상의 중심’>이 선정되었다. 주변에는 또한, 삼성 SDS, LG CNS 등 대형 기업체들과 CJ E&M, MBC 본사, SBS 미디어 스퀘어 등 방송 업체들이 이미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신사옥에서의 첫 방송은 4월 7일 월요일 0시로 정해졌고, 이사 기간에도 당연히 24시간 뉴스는 중단 없이 방송될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새로운 CI도 선 배 신사옥의 새 얼굴에 어울리는 이들이 마이크텍과 방송 화면 등에 노출될 것이다.

YTN 뉴스퀘어는 사옥을 새로 짓는 의미에 걸맞게 야심 찬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먼저, 일반인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방송 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투어 코스를 만들어 방송 제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체험 스튜디오에서는 자신이 방송에 나오는

빙글빙글 돌아 오르내리는 계단 모양으로 속칭 달팽이 계단이라고 불린다. 긴박한 보도국의 특성상 멀리 층계를 돌아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1층에는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 생방송 토크 쇼 등 공개형 형식의 방송을 진행할 수 있고, 150평 규모의 미디어 홀은 방송, 공연, 예식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타 방송사에는 없는 2층에서 5층까지 수직 직통 계단이 만들어져 신속하고도 원활한 방송 진행에 심부름 활용될 계획이다. 빙글빙글 돌아 오르내리는 계단 모양으로 속칭 달팽이 계단이라고 불린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일이 파일과 메일, 인체스트로 이루어져 사람이 실제로 이동할 일이 줄었지만, 긴박한 보도국의 특성상 멀리 층계를 돌아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달팽이 계단’은 신속한 의사소통을 상징하며, 예전 연합뉴스 건물에서 근무를 해봤던 YTN 고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긴급한 방송을 위해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녔던 추억 어린 방송 인프라(?) 환경이기도 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YTN이 20년 청년 역사의 한 획을 그게 될 상암동 뉴스퀘어! 이곳에서 YTN은 새로운 용비(雄飛)를 꿈꾼다.

대한민국의 하루를 여는 <뉴스 출발> 아침을 함께 여는 사람들

이진주 | 앵커팀

AM 2:00

오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지령종 소리. 방 안에 있는 5개의 시계가 극성 대며 저를 깨웁니다.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
다. 매일 새벽 유체 이탈하는 느낌으로 일어나 YTN 차량에 몸을 던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미션 절반은 성공!

AM 3:00

회사 도착. 20층에 다다르면, 부장님과 선배 몇 분은 이미 출근
하시어 런다운을 짜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혹여나 빠진 뉴
스가 있으면, 바로 어디론가 전화해 독촉하고, 헤드라인을 짜
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저 또한
뉴스 전반을 살피고, 우리 시간에 들어올 만한 긴급 뉴스가 있
는지 콘텐츠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입맛이 없어도 무언가 입에 꾸역꾸역 집
어넣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힘찬 소리를 위해! 이 때문
에 별명이 생겼습니다. ‘위(胃)대(大)한 진주!’

AM 4:00

분장(?) 아니 변장의 시간. 하루를 여는 첫 뉴스인 만큼 시청자
에게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 머리까락 한
가닥도 섬세하게 처리해야 하는 분장실 사람들도 뉴스출발을
책임지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활기를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하면 체조도 하고 춤도 춥니다. 몸치 맞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는 데 제격입니다.

AM 4:30

뉴스 시작 10분 전. 스튜디오의 스태프들과 함차게 인사하고
앵커석에 앉습니다. 부조정실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준비하는
소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또한 손발이 모자라 바빠 뛰는 AD
헤민씨. 그녀의 뒷모습에서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AM 4:40

함차게 헤드라인 뿜어대며 뉴스출발 1부 시작.
이 시각 시청자의 인방을 점령하기 위해, 이 시각 깨어있는 전
세계 국민을 끌어 모으기 위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하며 다가갑니다. 뉴스출발 1부와 2부를 진행하는 두
수진 PD의 낭랑한 톨에 맞추어.. 그녀의 뉴스에 대한 애정 역
시 남다릅니다. “뉴스출발은 매일 매일의 뉴스 라인을 따라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주요 이슈들을 블록별로 상세하
게 가주니까 뉴스가 스토리가 되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해하
기도 좋고 기억하기 쉽고요. 매일 아침 세안을 하지 않으면 하
루가 찻찻한 것처럼, 꼭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봐야만 하는
‘must news’인 셈이죠.” – 두수진 PD –



AM 6:00

뉴스출발 3부. 또 다른 시작. 6시에 깨어나는 시청자를 잡아
야 해. 마음속의 시작 전원을 다시 켭니다. 더더욱 활기찬 모습으
로 다가가지! 새벽 2시부터 출근해 준비한 홍석근 PD의 진행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지나간 어제 소식과 예정된 오
늘 뉴스를 단번에 정리하고 나설 수 있도록, ‘아침 장식’처럼
런다운 짜고 있습니다.” – 홍석근 PD – 그의 뉴스는 단뚝 메
뉴가 아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식’입니다.

AM 6:50

이어지는 뉴스오늘 1부 예고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굿바이 인
사하고 스튜디오를 나옵니다. 뉴스출발을 보내고 뉴스오늘을
맞이하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열정적인 눈빛을 확
인하고, ‘별별영상’ 준비~

새롭게 편집 1부에 합류해 열정을 쏟고 있는 강진원 PD의 말
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아침 시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뉴스출발’을 만들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더
욱 차별화된 구성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 강진원 PD – 신혼의 단꿈도 잠시, 매일 아침을 저희들과
맞이해야 하는 선배, 파이팅입니다.

책임감과 꼼꼼함으로 뚝친 부장님. 열정적인 PD 선배. 짝꿍 진
유현 앵커. ‘출발 이시각’의 안보라 앵커. 새벽 날씨를 전해주는
전혜민 기상캐스터. 그리고 사명감으로 함께해주는 AD와
VJ. 소리없는 노고!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스태프와 선
후배들이 ‘뉴스출발’을 빛내줍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시청률 2%를 향해! 오늘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왼쪽부터 | 강정규 PD, 진유현 앵커, 김현아 PD, 강진원 PD, 안보라 앵커,
김승재 편집1부장, 두수진 PD, 어일원 VJ, 이진주 앵커, 홍석근 PD.

‘YTN 웨더 · 과학기상팀’의 변신을 기대하세요

정혜윤 | 기상팀

오늘 중계 누구?
날씨 체크해라?
리포트는?

기상청에 전화해봐?
지금 눈 와?
스케줄 바꾸고 지금 당장 중계 준비해 나가!!!
원고는 애드리브로 !!!

짜잔 !!!
아침 9시가 넘어가면 이렇게
20층 과학기상팀은 언제나 시끌시끌합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원래 예정대로 하루가 흘러가면
다행이지만 하루도 생각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상캐스터도,
기자들도 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대처하고 방송에 투입되고
날씨 상황을 체크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더 빛나는
기상캐스터 후배들이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과학기상팀과 웨더분부는 다른 팀보다
한 달 먼저인 3월 10일부터

새로운 등지에서 설렌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웨더 본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김호성 본부장님의 지휘 아래
지난해부터 웨더팀에서는 탐벌 워크숍과,
또 전체 워크숍을 통해 상암동에서
새롭게 바뀌나갈 날씨 포맷과 방송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토의해 왔습니다.
기상캐스터와 기자들의 의견도 종합해 발표하고,
피디와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고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고 어리개만 굴었던 후배들도
이 시간만큼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었지요. ^^

기상캐스터들은 어느 장소에 내려다 봐도
애드리브로 방송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VR, AR을 통해 더 실감 나고 피부에 와 닿는
날씨 영상을 구현해 낸다는 포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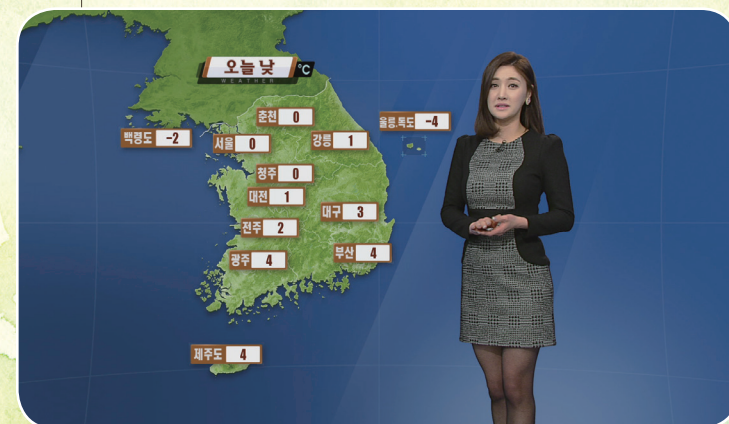
PD들은 캐스터 각자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도록 YTN 웨더 채널만의
날씨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예를 들면 캐스터의 이름을 걸고 예보하는
날씨를 제작하는 겁니다.
지휘봉이나 안경을 쓰고 날씨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나의 친절한 날씨’,
김진두 팀장님과 임성은 캐스터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미리 보는 날씨’,
또 특정 지역의 날씨 이슈나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한 ‘내 고장 날씨’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투리 날씨와 북한 날씨를
재미있게 구성하고, 제작 프로그램에서는
날씨를 음악과 미술에 곁들여 감성적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딱딱하기만 했던 스튜디오는
뉴스별로 콘셉트를 달리해 때로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편안한 느낌의 뉴스로,
때로는 정통 뉴스로, 때로는
현장감을 살린 뉴스로 웨더 채널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추위와 더위, 미세먼지, 폭우, 폭설,
이제는 날씨가 매일매일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날씨,
매일 하는데 지겹지 않나?
하지만 아닙니다.
하루도 똑같았던 적이 없었고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일이
바로 기상이었습니니다.

그래서 1년이 훌쩍 지나가고,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고 늘 새롭습니다.

하루하루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바쁜 웨더팀이지만
날씨변화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우리나라 유일의 날씨 채널
‘YTN 웨더’ 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쁘게 말이죠.
파이팅 ‘YTN 웨더’.
파이팅 ‘YTN’



주)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현실과 접목된 형태. 예를 들어
기후정보, 버스노선도, 길 안내가 현실에 있는 간판에 표시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마케팅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릴 수 없다



YTN 대전·충남 지역마케팅 국장
안홍수

새해에는 지역 마케팅 선전과 그 결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난 구두끈을 힘차게 조이며 사무실을 나선다. 언론사에서 광고마케팅 활동을 시작한 지 20여 년,
전파매체 영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은 매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해는 종편사들과 새로운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광고 시장도 더욱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서울 및 수도권 마케팅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전·충남의 마케팅 상황 역시 그리 녹록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유지해왔던 자국과 지방 영업소의 이원체제를 벗어나 새롭게 대전, 충남
지역마케팅 국장으로 임명돼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 마케팅
활동은 주로 지자체와 대학, 중소기업, 지역 축제 등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다.
지역에서의 광고 마케팅은 지역 광고주들의 YTN 광고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지연 및 혈연 등의 지역 정서 파악 및 지속적인 관계 영업의 필요성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의 기획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 충남 지역은 이정우 자국장님이 지금까지 지자체와 대학, 각 기업체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대학 총장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 마케팅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하루, 매일 매일 소중한 만남을 결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 자동차는 바람을
가르며 YTN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제는 감나무에서 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좋은 토양을 일구고 그 안에 YTN 고유의 감나무를 넓게 심는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이다.

그 선두에 YTN 대전·충남 지역 마케팅이 앞장설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 마케팅 국장으로서
충청 지역에 대한 면밀한 학습과 관찰, 광고주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로 더 좋은 기획 마케팅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WIN-WIN 전략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YTN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이며 미래의 방향타일 것이다.

YTN 지역 마케팅 목표 1위를 향하여 쉼 없이 달릴 것이다.

YTN 대전, 충남 지역 마케팅 파이팅 ~~~

광고주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로
더 좋은 기획 마케팅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WIN-WIN 전략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왼쪽부터 | 박상은 호남·제주 지역마케팅국장, 김무현 충북 지역마케팅국장, 박상준, 한상규 네트워크협력팀장, 김성수 강원 지역마케팅국장, 정혜윤, 황병길 대구·경북 지역마케팅국장,
김석만 부산·경남 지역마케팅국장,
네트워크협력팀 산하에 강원과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지역마케팅 담당이 있다.

“왜 20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만 취재할까?”

함형건 | 차장 앵커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왜 10년, 2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만 취재하고 일해야 할까?” 지난여름 사내 후배들과 함께 처음 데이터 저널리즘 스터디를 하면서 꺼냈던 말이다. 공공 데이터 분석과 현장취재를 병행하면 제보가 없어도 참신한 뉴스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약 없는 미래를 위해 함께 공부한 내용이었지만 데이터 저널리즘 도구들을 활용할 기회는 일찍 왔다. 연말에 한시적으로 방송하게 된 ‘기사식당-뉴스전’, 별 고민 없이 평소에 마음먹었던 화학물질 안전 관련 아이템을 꺼내 들었다. 유독물 공장 문제를 주제로 삼은 건 과거 환경 분야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큰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있어야 비로소 관심을 갖는 기존의 보도행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어디에 얼마나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있고, 주변엔 어떤 시설이 있는가? 문제는 뭔가?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매핑과 분석이 가능했다. 문제는 공공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정리하고 걸러내는 과정이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유독물 사업장만을 추려내 위치 정보 2800여 개를 빼내고, 다시 각 사업장에서 보고한 유독물질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전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별도로 입수한 지난 10년간의 화학사고 발생 내역과 위치정보도 수작업으로 정리해나갔다. 어린이집 4만여 곳 등 보육·교육 시설의 위치정보도 함께 살펴봤다.

GIS 전문소프트웨어 2가지로 교차 검증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다. 전국 유독물 취급 사업장 2,800여 개 반경 500m 안에만 어린이집 1,558개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도 수두룩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 주변에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마구 세울 수 있게 한 허술한 법규가 문제였다. 현장 취재를 통해 공장 지대 주변의 학교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나아가 유독물 취급 사업장의 정보를 인터랙티브 지도로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위치와 500m, 1km 반경의 보육·교육 시설뿐 아니라,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질 내역, 유독물질 독성정보와 대응요령 등을 제공했다.

보도가 나간 뒤 정부보다 언론이 먼저 앞서 각 지역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공해 제공했다는 전문가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번 제작에서 새삼 느낀 건 협업의 중요성이다. 데이터 정리와 분석뿐 아니라 실감 나는 방송 전달을 위해서는 그래픽 작업에도 스태프들의 많은 고민과 수고가 필요했다. 현장 취재와 코너 구성, 인터넷 데이터 지도 제작까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거쳤다. 성탄절을 비롯한 휴일로 반납하다시피 하고 묵묵히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사식당-뉴스전’ 제작진의 수고 덕분에 비로소 가능했던 방송이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여러 직종 간 대화로 지혜를 모으고 문제 해결을 해나간 제작진의 경험은 자산으로 남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른 의미 있는 작업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W
WEST

0020



E
EAST

0021

S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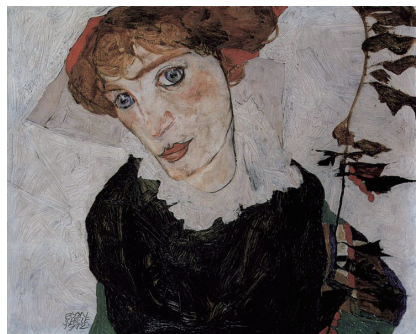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전시회

변주영 |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 대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120주년, 클림트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1월 18일 개막해 3월 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50일간 진행됩니다.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은 2002년 6월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과 협력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2002년 이래로 아시아 지부를 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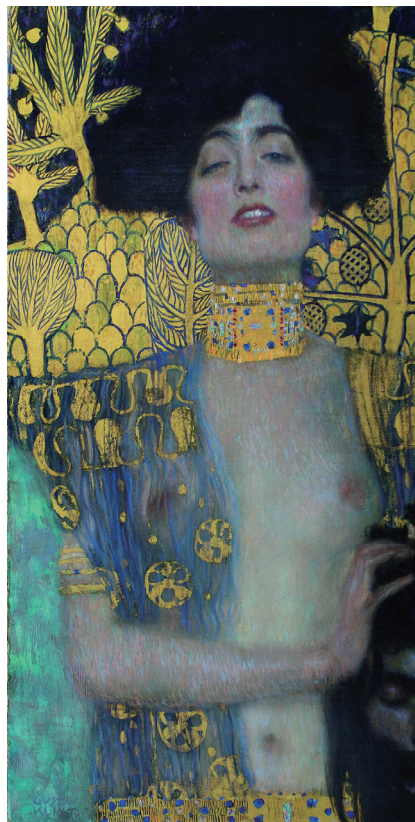
아 한국의 유능한 연주자와 오케스트라를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등지에 적극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간 주로 정기연주회를 통해 양국 간 음악의 교류에 역점을 두다 지난 해에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황금 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유화 28점과 표현주의, 에로티시즘의 거장 에곤 실레의 유화 25점 총 53점의 명화가 선보이며 특히 에곤 실레의 작품은 한국에서의 최초 전시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클림트가 전개한 독창적인 황금빛 색채와 문양은



현대의 디자인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스카프나 넥타이 같은 명품 디자인에서부터, 도자기, 게임용 카드와 퍼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며 세계 미술사의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박물관이 소장한 작품을 TWIN 박물관의 고



유 기술로 복제한 레플리카 전시회입니다. 레플리카는 원본 그림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표면 상태 그대로를 복제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으로 원본과 같은 음영을 느낄 수 있으며, 100년간 원본의 색감을 보증하는 인증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이 전시는 YTN의 전폭적인 협력과 홍



보에 힘입어 개막식 당일부터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석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세 먼지와의 본격 맞짱

오경주 |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PD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전국 곳곳에 황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하면 소복소복 내리는 하얀 눈, 그리고 옷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생각나기 마련. 그런데 올해 겨울에는 2008년 이후 가장 포근한 겨울을 보였던 가운데 유난스럽게도 자주 소식을 전해주는 특별한 손님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이름 미세먼지. 도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가 더해져 지난겨울에는 유독 한반도에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때가 잦았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추웠던 날씨가 풀릴 때 높아지곤 하는데 한반도를 차갑게 만들던 대륙고기압이 먼 북쪽으로 밀려나고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게 되는 그때,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중국에서 각종 화학 물질이 섞인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유입되게 돼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스모그 속에 포함된 미세먼지(PM 10)보다 더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PM 2.5)는 우리 호흡기관에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전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 Weather팀은 그들과 본격적인 맞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라.”

Weather팀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미세먼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를 차갑게 만들던
대륙고기압이 먼 북쪽으로 밀려나고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게 되는
그때,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중국에서 각종 화학 물질이 섞인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유입되게 돼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

1. 환경부·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 통보문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통보문을 기반으로 앵커리포트를 구성해 생방송을 하면서 미세먼지 전망과 예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특정 시간대의 예측 모델 그래픽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이 예보를 더 쉽게 이해하면서 빠르게 미세먼지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동네 미세먼지 상황은 ?

각 시간대 편성된 생방송에서는 이 시각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에어코리아 사이트, 기상청 방재정보 사이트의 5분 단위 측정값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해 더 빠르고 정확한 대기 질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3. 미세먼지 흐름과 초미세먼지 예측. '한국 대기 질 예보 시스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매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흐름과 농도 짚는 시간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안양 대학교와 벤처기업의 연구 목적으로 개발한 '한국 대기 질 시스템'을 발견했다. 방송에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결과 시청자들의 미세먼지 대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공식적인 데이터와 함께 미세먼지 흐름 전망을 전하고 있다.

4. 실시간 자동화. weather만의 플랫폼 '날개 pop-up'

weather팀은 여름철 전력수급현황을 비롯한 산사태 정보, 기상 특보 등의 다양한 정보 자동화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 예보와 실시간 측정 자료도 자동화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청자들의 시각적 집중을 돕기 위해 송출화면 오른쪽 상단에 애니메이션과 함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 미세먼지는 물론 다양한 날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빨리, 그리고 효과적인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Weather팀의 끈질긴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김윤경 | 〈김윤경의 생생경제〉 진행자



살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라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는 프로그램과의 인연은 2008년 개국 직후부터였다. 한 주간의 중요한 국제경제 이슈를 전달하는 코너를 맡아 1년여 세월 열심히 방송했다. 지난해에는 생활 경제를 다루는 ‘장바구니 경제학’ 코너를 맡아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을 받았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다시《‘생생경제’ 식구가 되었고, 곧 ‘경제기사 뜯어보기’란 코너를 맡았다. 왜 증권사는 늘 장밋빛 전망만 고수하는 것인지 같은,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모른 채 받아들이었던 경제기사들에 대한 이면을 풀어주는 코너.

경제 기자로 살아온 지 19년 차에 접어들니 평소에 얼마나 관성적으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의 파격으로 경제 기사가 포장,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할 말이 많아 입이 간질간질했던 차에 반가웠다. ‘생생경제’ 제작진, 보통이 아닌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짐작, 우연한 기회에 진행식에 앉게 돼 매일 만나면서 ‘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라면 이제 어느 분야의 기사를 읽어도 그것의 전후좌우를 대체로 기능할 수 있지만 ‘생생경제’ 진행자란 자리는 결코 녹록치 않다. 굵직한 인터뷰가 하루에 두 개는 기본이다. 증시 등 금융시장과 부동산, 창업과 취업, 재무관리, 노사관계, 각종 경제정책, 산업 동향과 글로벌 경제 등 하루 두 시간의 흐름만도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다.



Relationship

그렇다고 절대 주마간산(走馬看山)이 아니다. 그건 최고만을 지향하는 제작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사력을 다해 아이템을 잡고 섭외를 하고 원고를 쓰고 오후 5시 온에어(On-Air) 빨간 불이 꺼질 때까지 전투한다. 거의 점심 결식(缺食)의 상태로.

“수고했다”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순간에도 제작진과 나의 머릿속엔 어떤 것이 아쉬웠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이란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도 가장 신선한 이슈를 가장 발 빠르게, 균형까지도 고려해 청취자들에게 선보인다는 자부심은 있다.

경제는 우리가 사는 것 그 자체이다.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와 다 얽혀있다. “우리는 경제 방송이니까”란 핑계는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우리의 사는 것과 연관돼 있다면 다룰 수 있다. 어떤 유의 기사는 어떤 신문에선 아예 다루지지도 않거나 단신 처리될지 몰라도 그 사안이 진정 중요한 것이란 판단이 들면 우리는 과감하게 깊은 인터뷰를 시도하고 쓴 소리도 한다. 그래도 아쉬우면 금요일에 한 시간을 털어 ‘금요기획’이란 특별 대담을 시도한다. 통상임금, 상가 권리금, 의료 민영화, 복지와 증세의 상관관계, 글로벌 경제 위기설까지 얹은 지식으로 절대 핵심을 짚을 수 없는 이슈들을 우리는 다룬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날그날의 방송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꼬집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면 쉽게 15층 라디오 편성국을 떠나지 못한다. 어둑어둑해져야 나오는 날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생생경제’ 팀의 역량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열정과 욕심, 실천과 비판의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주말이에요~”

진미선 | 〈진미선의 아침풍경〉진행자

YTN
NEWS
FM 94.5
MHz

“너 ‘YTN’에서 라디오 하는 거 맞아?”
매일 에세이집을 뒤지고, 지인들로부터 음악 속 뒷이야기를 캐내는(?)
절 보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대표 뉴스채널 YTN NEWS FM에서 이렇게 촉촉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한 뉴스로 채워진 전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감성 멘트와 노래로 청취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침풍경’.

매주 주말 7시 20분부터 9시까지, 분명 달콤한 시간이지만, 직접 원고까지 작성하다 보니 한 주라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아침풍경’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코너를 꾸려야 청취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노래가 힘들었던 청취자들의 한 주를 토닥여드릴 수 있을지... 길을 걷다 좋은 노래가 들려오면 귀가 번쩍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우연히 방송 소재를 발견하면, ‘이건 우리 아침풍경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해줘야지.’ 하고 메모하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람 싸늘해도 괜찮아. 사람 따스하니깐!”
매주 청취자들로부터 받은 가슴 따뜻한 사연에 제가 더 위로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청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뮤지컬 티켓 프로모션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 태어나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 공부방 아이들을 위해 티켓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여아이들의 사연이 라디오에 조심성 없이 소개돼, 예민한 마음이 다칠까 전화로 대신한다며 티켓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말씀에 주저 없이 티켓을 보내드렸고, 얼마 후, 아이들이 잘 보고 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문자 사연] “바람 싸늘해도 괜찮아. 사람 따스하니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다는 의미로, 세상은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풍경지기님에게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같이 숨소리로 죽어 가며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선물에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되는지, 감사하기만 합니다.

“YTN에서 라디오 하는 거 맞느냐고요?
네, 저 YTN에서 감성 촉촉한 ‘아침풍경’하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하는 마지막 멘트를 YTN 가족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립니다. 성시경의 음악도시에 ‘잘 자요~’가 있다면 진미선의 ‘아침풍경’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와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달콤한 말.

“여러분, 주말이에요~”

박진환 | 도쿄 리포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뜻하지 않은 소중한 인간관계로
이어지거나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부터 해외방송팀 해외리포터 활동을 할 기회를 얻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방송팀의 친절하고 능력 있는 스태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취재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종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 왜곡 등 한일 관계가 냉각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언제 한일 관계가 좋은 적이 있었던가), 이럴 때일수록 일본의 소소한 일상과 한일 간의 민간 교류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속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은 한국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일본에서 생활한 지 어느새 9년. 한일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계기로 일본에 유학 온 뒤로 지금은 대학에서 일본 문화 교육용 다큐멘터리를 제작·개발하는 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일본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찍을까, 어떻게 편집할까 등을 고민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야말로 이 작업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작업으로 일본의 연구자, 영상 제작자들과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가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한일 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 일본인들의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의 모습을 한국에 전하자. 그들과 함께 사는 재일 교포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자. 그래서 해외리포터가 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말과 휴가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해외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면 할수록 본업보다 해외리포터 활동에 더욱 흥미를 느껴 큰일이다. 이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행복 하겠다.

해외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뜻하지 않은 소중한 인간관계로 이어지거나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기도 한다. 취재차 방문하게 된 현장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취재 이틀째 아무 말이 없이 나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다. 그 안에



는 첫날 나의 리포터 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30장이 들어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 취재해 주어서 아주 고마워서 기억해 두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사진 찍는 것이 취미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내 손을 잡으며 사진을 건네주던 관리인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꽉 막혀 있어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러한 따뜻함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리포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할 것 같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담긴 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눈. 한국과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러한 눈을 가진 해외리포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창의 인재를 세계무대로~

이은구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PD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학생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겨루는 '201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지난달 22일 광명시 체육관에서 약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YTN사이언스, 광명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회로 작년 1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아시아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로 확대되면서 중국팀 등을 포함한 국내외 약 200여 개 팀이 도전장을 던졌다.

YTN사이언스, 광명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회로 작년 1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아시아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로 확대되면서 중국팀 등을 포함한 국내외 약 200여 개 팀이 도전장을 던졌다.



대회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참가 학생들이 팀 단위로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세운 뒤 이를 공연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팀워크 등을 심사하여 도전 과제별로 수상자를 가리는 대회이다.

입상한 상위 6개 팀은 오는 5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개최되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지난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상을 포함해 은상과 동상, 특별상을 받으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YTN사이언스에서는 이 대회를 통해 아시아 및 국내 인재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겨루며 사회성과 협동성을 배울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러한 인재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맘껏 기량을 펼치며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창의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인의 꿈을 키운 소중한 경험!

차수빈 | 시드니대학교 경제학과

처음 YTN 타워에 들른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송기자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진 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방송국에서의 업무는 어떤지, 특히 기자나 PD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머릿속 스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17층 사이언스에서 선배님들께 한 분 한 분 긴장하며 인사드렸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배정된 팀은 <판도사 2.0> 팀이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편성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아이템 회의를 하고 작가들과 대본을 만들고 출연자들이 출연하고, 편집하고, 시사에 가편, 종편 등 저에게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판도사 2.0> 팀에서 제 입으로 ‘스탠바이 큐’를 외쳤던 FD를 경험했던 순간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얘기일지 몰라도 <판도사 2.0> 팀을 통해 크게 배

운 것 중의 하나가 방송국 PD는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능숙하고 열정적인 <판도사 2.0>팀 윤광현 PD는 제가 가질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지신 선배였습니다. <판도사 2.0>팀 다음으로 배정된 곳은 <사이언스 뉴스>팀이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직업이 방송기자였던 터라 과연 정말 그 꿈이 제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취재 소재를 찾아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저는 이번 SCIENCE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시드니로 돌아가서도 YTN 월드 리포터 등을 통해 YTN 뉴스 제작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SCIENCE 인턴의 기회를 주신 YTN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꾸기만 했던 기자의 일을 실제 인턴을 통해 조금이나마 체험해보니 제 적성과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인턴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언스 뉴스>에 출연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짧은 사이언스 인턴 생활 중 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생방송의 긴장감, 카메라 앞에서의 효과적인 연출 등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SCIENCE 인턴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건 무엇보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으로만 꿈을 그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 스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지 한 발 더 앞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이언스TV의 여러 선배님의 따뜻한 조언, 격려 등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많은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차 수 빈 리포터
호주 시드니 대학 재학

NOTICE BOARD

입사 우수현 재무회계팀 2.24 | **퇴사** 이성희 자선운영팀 3.2 | **노태영** 영상편집부 1.24 | **진보** 최종인 윤성희 마케팅1팀, 이종하, 김도영 마케팅2팀, 지민근 마케팅3팀, 민병호, 변재철 문화사업팀, 최성호, 하정완 기획사업팀, 신현준, 황보연 인문학 정치부, 임승환, 고한석, 한성욱, 이교준, 임상호 경제부, 권민석, 오점곤, 홍주예, 권준기 사회1부, 박영진 사회2부, 김평정 대전지국, 이대건 스포츠부, 지순한 국제부, 김한아, 강진원 편집1부, 이승윤, 이원희 편집2부, 박성화 편집3부, 오승엽, 계훈희, 윤현숙 편집4부, 오동건 영국팀, 이승주, 김종완, 오유철 영상취재1부, 정철우 영상취재2부, 노옥상, 김정원, 이상엽 영상편집부, 김지선 선거단, 양일혁 제작팀, 정유진 디지털콘텐츠팀, 정경남, 유화성, 나영채 기술기획팀, 김태동, 김세영, 김진국 방송인프라팀, 문석호, 류근민, 송병준 IT기술팀, 김성열, 주윤영, 유재동, 한철욱 송출기술부, 권혁근, 이현직, 장승욱, 김용수, 배경호, 양태열, 이광희, 이상경, 이상천 제작기술1부, 김진호, 기호균, 김영호, 박종대, 강기찬, 남궁세은 제작기술2부, 정성욱, 조상우, 조주현, 민병오 중계부 2.24 / 박근표 시청자센터장, 김홍규 YTN 미래연구소장, 추은호 타워사업국장, 천상규 해설위원실장, 한영규 편성제작국장, 김호성 웹더본부장, 이동현 취재1부국장, 김형근 취재2부국장, 강홍식 편집부국장, 상수종 선거단장, 김종술 사이언스총괄 부국장, 이병식 미디어전략팀장, 박성남 기획총괄팀장, 강성욱 인사팀장, 나은수 자선운영팀장, 전병곤 마케팅1팀장, 이상근 마케팅2팀장, 이백호 매체협력팀장, 설영수 기획사업팀장, 김해중 타워운영팀장, 오민석 경제부장, 류재웅 사회1부장, 송태업 세종시 취재팀장, 김상우 국제부장, 김승재 편집1부장, 김동민 편집4부장, 이종수 편성 기획팀장, 조승희 글로벌기획팀장, 김용섭 해외방송팀장, 장창원 기술기획팀장, 김영철 방송인프라팀장, 김용구 IT기술팀장, 이성호 송출기술부장, 임영선 제작기술1부장, 하창재 제작기술2부장, 이귀영, 임종열, 채문석 YTN 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류재복 사회1부 (세종시, 군위), 이병균 자선운영팀, 홍무국 관제팀 → 자선운영팀, 홍무국 타워운영팀 → 타워사업국 타워운영팀, 마케팅국 지역마케팅팀 → 네트워크협력팀, 기술국 인프라팀 → 방송인프라팀, 장비관리팀 → IT기술팀, 경영기획실 인사육건팀추진단 → 홍무국 자선운영팀 2.17 / 박철원 홍보·사찰자팀장, 최명신 도쿄지국장 2.21